

# 의복스타일과 색이 신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Clothing Styles and Colors on a Body Image Perception\*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교 수 김 효 숙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 수 최 창 석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전임강사 이 은 실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onkuk Univ.

*Professor : Hyo-Sook Kim*

Division of Electronics, Information & Communcation Engineering, Myongji Univ.

*Professor : Chang-Seok Choi*

Division of Beauty & Fashion, Jinju Int'l Univ.

*Full-time Lecturer : Eun-Sil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lothing colors, clothing styles on women's body image perception. The experimental design was  $2 \times 2 \times 9$ (perceiver's gender  $\times$  clothing styles  $\times$  clothing colors) factorial design with between-subjects design. Subjects were 320 college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Perceiver's gender, clothing styles, and clothing colors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3 variables of shoulder, the upper half of the body, and bust. Shoulder and the upper half of the body had an interaction

Corresponding Author: Eun-Sil Lee, Division of Beauty & Fashio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270 Sangmoon-ri, Moonsan-eub, Jinju 660-759, Korea Tel: 82-55-751-8271 Fax: 82-55-761-7407 E-mail: eslee30@netsgo.com

\*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2000-000-00406-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ffect by clothing styles and clothing color.

Perceiver's gender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hip size, length of leg, height, clothing styles did a significant influence on hip size, length of leg, height, and slender figure. Clothing colors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length of leg, height, and slender figure. Length of leg and slender figure had an interaction effect by perceiver's gender and clothing styles. Hip size had an interaction effect by perceiver's gender and clothing color. Hip size had an interaction effect by clothing styles and clothing col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at coloration of clothing and clothing style affects perception of stimulus persons wearing apparel.

**주제어(Key Words):** 의복색(clothing color), 의복스타일(clothing style), 의복배색(clothing coloration), 신체 이미지 지각(body image perception)

## I. 서론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지각하게 될 때 특히 외모의 특징은 지각 대상자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신체외모는 타인에 관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사람의 성별, 인종,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나 직업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이다. 최근 현대인은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의복은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의해 신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여 착용자의 신체이미지를 효과적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에는 색, 선, 형태, 재질 등이 있으며, 의복은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현재 유행하는 수트의 색과 스타일을 조사하여, 의복색과 스타일에 의해 변화를 주어 그 의복의 변화에 의해 착용자의 신체가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으로, 지각과정에서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특히 대인지각이라고 하며(정양은, 1982), 이는 타인의 외관에 의해 나타나는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전체적인 형태 안에 통합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를 지각자가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색은 의복에 있어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

는 요소이다(강혜원, 1995). 의복스타일은 선과 형태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복을 착용할 때는 상의와 하의에 의해 조합이 되는데, 이러한 조합에서 의복의 아이템이 어떤가에 따라 그 이미지는 다르다.

의류학 분야에서는 이미지 지각과 관련하여 인상형성, 대인지각 등의 용어로 연구되어졌으며,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8편 이하에 불과한 연구가 1980년대 이후에는 인상형성이론에 대한 연구가 70편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인상형성이론이 최근에 더욱 주요한 연구 과제임을 알 수 있다(이경화, 나수임, 1999). 선행연구에서의 내용을 보면 심리적 이미지 효과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신체이미지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여밈, 무늬(최은영, 1995; 위은하, 김옥진, 2001; 박순천, 2002) 등에 의한 신체적 시각적 효과를 연구하였다.

한편 대인 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보면 자극물 제작 및 제시방법이 실물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식의 방법이 이용되었다(이미연, 1999). 최근 컴퓨터의 발달은 사회 모든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90년대는 인터넷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다가올 21세기는 가상현실 혹은 사이버 스페이스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한민형, 이지은, 2000). 이러한 가상현실과 관련한 기술은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 의복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의복설계, 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3차원은 평면적인

2차원에서 보다 발견되어 실물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졌는데, 최근 인터넷에서는 3차원 아바타(AVATAR)가 성행하고 있다. 아바타는 '화신'을 뜻하는 힌두어로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대표하여 사용하는 입체 캐릭터를 의미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한민형, 이지은,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제인물과 흡사한 3D 시스템에 의해 제작된 모델을 자극물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는 의복의 색상, 스타일 등의 변화가 비교적 수월하고, 변인의 통제가 정확하며,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지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20대 성인 여성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유행하는 의복의 색과 스타일에 의해 조합된 의복이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의복스타일, 의복색에 따른 상반신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성별, 의복스타일, 의복색에 따른 하반신 및 전체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의복 스타일을 분리하여 배색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의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서적, 연구논문 등을 기초로 하여 대인지각이론, 의복색과 이미지 지각, 의복스타일과 이미지 지각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과 준실험법이 사용되었다. 내용분석법은 의복색 선정을 위해 실시하였고, 준실험법을 통하여 20대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관찰자의 신체이미지 지각을 조사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인지각이론

지각은 신체적 에너지가 경험으로 적극적인 변이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자의 활동적인 관여를 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Hastorf, Schneider, & Polefka, 1970). 지각과정에서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특히 대인지각이라고 하며, 그 대상인물의 심리적 소질에 관한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양은, 1982).

대인지각에 관한 이론으로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정보의 의미를 조직하고 해석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대인지각의 맥락에서 사회적 인지라고 하며, 사회적 인지에는 두드러진 단서, 범주화, 도식 등의 이론이 있다(강혜원, 1995). 두드러진 단서는 그 단서가 놓여 있는 배경과 주어진 단서를 비교·판단함으로써 결정되며, 그 예로는 휠체어를 탄 사람, 격렬한 행동, 빨간 스웨터 등을 들 수 있다. 범주화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들을 어떤 집단으로 묶어서 분류하거나 어떤 범주의 일부분으로 넣어보는 즉각적인 과정을 말한다. 도식이란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획득하여 기억에 저장된 지식의 통합체로서 복잡한 정보들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하며,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도와준다.

즉 대인 지각은 타인의 외관에 의해 나타나는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전체적인 형태 안에 통합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를 지각자가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외모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 지각은 의복의 각 디자인 요소, 얼굴, 헤어스타일에 대한 각각의 요소들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적인 영상으로 시 지각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적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자 변인, 지각대상자 변인, 상황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Lennon & Davis, 1989),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변인으로 성별, 지각대상자 변인으로는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을 설정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 2. 의복색과 이미지 지각

색은 의복에 있어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강혜원, 1995). 또한 색은 대체로 색의 조화에 의해 미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며(김영자, 1998), 색의 어울림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가 나타나므로 색 조화미의 기준은 인지하는 사람의 기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Francis와 Evans(1978)는 짙은 색 의복이 관리직 직원 여성의 능력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이항미, 김재숙(1998)은 남자의 인상차원에 대한 영향력은 의복격식차립보다 의복색의 영향이 더 컸고, 의복색에 따라 이미지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유경숙(1996)은 색 이미지 평가연구에서 빨강이 강한, 따뜻한, 화려한, 발랄한, 정열적,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다른 색에 비해 빨강은 전달되는 이미지 특성이 많았다. 이명희, 강승희(1998)의 연구에서는 재킷색과 지각자의 특성은 지각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숙, 김재숙(1998)의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의 연구에서 한복 착용자의 상하 배색 이미지는 저고리색과 치마색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치마색보다 저고리색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각각의 색과 배색은 지각자의 심리적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어 대인지각에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 3. 의복스타일과 이미지 지각

의복스타일은 선과 형태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복을 착용할 때는 상의와 하의에 의해 조합이 되는데, 이러한 조합에서 의복의 아이템이 어떤가에 따라 그 이미지는 다르다.

박순천(2002)은 중년남성의 정장 의복디자인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신체디자인적인 면에서 고찰한 결과 여밈과 양복무늬에 따라 신체의 시각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더블여밈이 싱글여밈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였고, 싱글여밈이 더블여밈보다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밈과 무늬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민무늬의 경우는 싱글이 키가 더 커 보였다. 위은하, 김옥진(2001)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에 적합한 수트의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연구를 하였다. 즉 하반신이 길어 보이는 효과와 키가 커 보이는 효과는 스커트보다 슬렉스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신의 경우는 슬렉스가 스커트보다 상반신이 더 작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의복을 착용하는 아이템에 따라 신체적 이미지 지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과 준실험방법으로 피험자간(between-subjects)설계이다. 2×2×9의 요인설계로서 독립변인은 성별(2), 의복스타일(2), 의복색(9)이며, 종속변인은 20대 여성의 옷차림에 관한 관찰자의 신체이미지 지각이다.

### 1.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신체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바지수트와 스커트수트를 착용한 20대 여성의 모습으로 의복단서 변인을 수트의 스타일과 색 배합에 따라 변화시킨 것이다.

#### (1) 모델개발

모델은 명지대학교 정보통신대 최창섭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중인 3D 패션 코디네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모델의 얼굴 및 신체는 한국의 20대 여성의 표준형 치수에 의하였다.

(2) 의복색 선정에 위한 내용분석 및 의복스타일 선정 모델에 입혀질 의복의 색은 2002년 9, 10월호의

<표 1> 스타일과 색에 의한 자극물

스타일	색	상하 동일색					상하 다른색			
		검정/검정	청색/청색	밤색/밤색	베이지/베이지	회색/회색	청색/검정	밤색/검정	베이지/검정	회색/검정
바지 수트 차림	검정/검정									
	청색/청색									
	밤색/밤색									
	베이지/베이지									
	회색/회색									
	청색/검정									
	밤색/검정									
	베이지/검정									
	회색/검정									
	스커트 수트 차림	검정/검정								
청색/청색										
밤색/밤색										
베이지/베이지										
회색/회색										
청색/검정										
밤색/검정										
베이지/검정										
회색/검정										

패션잡지의 광고에 나타난 의복색을 조사하였다. 이때 패션잡지는 1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패션잡지를 조사하여 1순위에 해당된 잡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복색은 검정, 청색, 밤색, 베이지, 회색의 5가지 색이 가을, 겨울 시즌에 가장 많이 착용하는 색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되어진 색은 크게 상하 동일한 의복색과 상하 다른 의복색으로 배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조합하였다. 즉 조사되어진 5가지 색을 상하 동일한 의복색으로 조사하였고, 상하 다른 색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검정 하의에 상의를 검정을 제외한 청색, 밤색, 베이지, 회색의 4가지로 변화시켜 전체 9가지 의복색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의복스타일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바지수트 차림과 스커트수트 차림의 2가지로 하였다. 스타일 선정을 위하여 2002년 가을

에 발행한 패션 잡지를 참고로 하였으며, 또한 의상 및 의류학과 관련 교수와 강사 5명의 의견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3) 자극물 제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극물은 3D에 의한 모델그림을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으며, 자극물의 크기는 A4 사이즈로 출력하였다. 한편 자극물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하였는데, 이는 지각자가 자극물의 얼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복만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커트 수트차림과 바지 수트차림이다.

2) 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 선정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박순천, 2002)에서 사용한 용어와 본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선택되어진 8개의

형용사는 7단계의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사용되어진 문항은 상반신, 하반신, 전체 신체 이미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졌는데, 상반신에 대한 문항은 '어깨가 넓어 보이는', '상반신이 커 보이는', '가슴이 커 보이는'의 3개 문항이었다. 하반신에 대한 문항은 '엉덩이가 커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키가 커 보이는',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의 4개 문항이었다. 전체 신체 이미지에 대한 문항은 날씬해 보이는 1개 문항이었다.

이때 측정된 문항의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된 형용사가 더욱 긍정적인 뜻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깨가 넓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질문지 구성

질문지는 3D에 의해 개발된 자극물로 20대 여성의 모습과 의복착용자의 신체이미지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의미미분척도문항, 피험자의 성별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서울 및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320명 이었다. 각 피험자는 2개의 사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9개의 자극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자극물 한 개에 남녀 각각 15명 이상씩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회수된 640개의 설문지중 응답이 비교적 불성실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637개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피험자는 자극물의 사진을 보고 각 형용사에 대하여 자극물에서 받은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1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되었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t-검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성별, 의복스타일 및 의복색에 따른 상반신 신체이미지의 차이

성별, 의복스타일 및 의복색에 따른 상반신 신체 이미지의 차이와 상호작용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3개의 상반신 신체이미지에서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어깨가 넓어 보이는, 상반신이 커 보이는 이미지는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주효과를 보면 의복스타일, 의복색 각각에 따라 3개의 상반신 신체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상반신이 커 보이는 이미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깨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극물의 어깨를 더 넓게 지각하였고, 스커트 수트 차림이 더 넓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에서는 밤색상에 검정색하의 차림이 가장 어깨가 넓어 보였고, 검정상하의, 청색상하의의 차림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신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극물의 상반신을 더 넓게 지각하였고, 스커트가 바지수트 차림보다 상반신이 더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의복색에서는 밤색상에 검정하의가 가장 상반신이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청색상하의가 상반신이 가장 작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에 대해서 스커트수트 차림이 바지수트 차림보다 가슴이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밤색상하의, 베이지상하의, 밤색상에 검정하의, 베이지상에 검정하의가 가장 가슴이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색상하의, 청색상에 검정하의 차림이 가슴이 가장 작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어깨가 넓어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즉 스커트수트는 검정색 상하의 차림이 어깨

<표 2> 성별, 의복스타일, 의복색에 따른 상반신 신체이미지의 차이

(N=637)

변량원		df	어깨가 넓어 보이는 F	상반신이 커 보이는 F	가슴이 커 보이는 F
성별(A)		1	5.60*	5.60*	.83
의복스타일(B)		1	7.30**	16.56**	32.43**
의복색(C)		8	6.24**	3.34**	10.00**
A×B		1	.69	.27	.20
A×C		8	1.71	1.82	1.37
B×C		8	3.93**	3.09**	1.56
A×B×C		8	.51	.69	1.01
잔 차		601			
독립변인		n	M	M	M
성 별	남	315	4.66	4.41	3.69
	여	322	4.90	4.66	3.81
의 복 스타일	스커트	343	4.92	4.76	4.04
	바지	294	4.61	4.28	3.42
의복색	검정/검정	64	4.16(d)	4.30(cd)	3.48(bc)
	청색/청색	64	4.33(d)	4.11(d)	3.02(c)
	밤색/밤색	78	4.45(cd)	4.45(bcd)	4.15(a)
	베이지/베이지	75	5.00(ab)	4.71(abc)	4.20(a)
	회색/회색	66	4.92(ab)	4.32(cd)	3.41(bc)
	청색/검정	77	4.79(bc)	4.45(bcd)	3.06(c)
	밤색/검정	75	5.33(a)	5.07(a)	4.27(a)
	베이지/검정	70	5.07(ab)	4.90(ab)	4.21(a)
	회색/검정	68	4.85(abc)	4.43(bcd)	3.81(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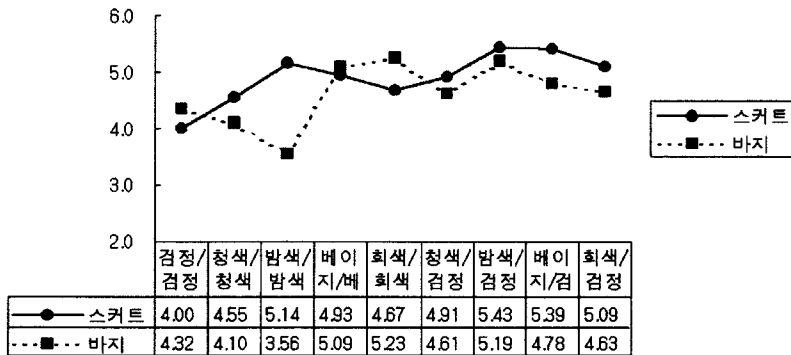
\* p<.05, \*\* p<.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결과(p<.05)

가 가장 좁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색의 의복 차림은 유사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지수트 차림은 밤색 상하의 차림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하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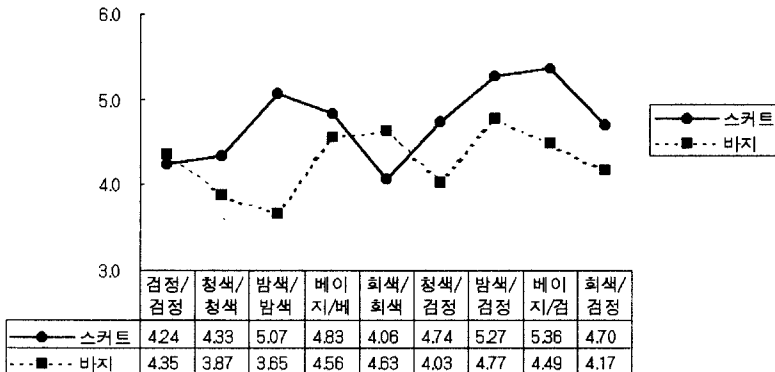
<그림 2>는 상반신이 커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즉 스커트수트 차림의 경우 베이지 상의에 검정색 하의차림과 밤색상하에 검정하의 차림이 가장 상반신이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회색상하의 차림이 상반신이 가장 작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바지수트 차림의 경우는 밤색상하의 차림이 상반신이 가장 작게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회색상하의 바지수트 차림이 상반신이 가장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극물의 어깨나 상반신을 대체로 넓고 크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복스타일에서 스커트수트 차림이 신체의 상반신이미지 지각에 대해 바지수트 차림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상반신과 가슴이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슬랙스 차림이 스커트 차림보다 상반신이 작아 보인다는 선행연구(위은하, 김옥진, 200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의복색에서는 밤색상하에 검정하의 차림이 가장 어깨가 넓어 보였고, 상반신이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 검정상하의, 청색상하의 차림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이고, 상반신과 가슴이 가장 작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어깨가 넓어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2〉 상반신이 커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한편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스커트수트 차림은 검정상하의 차림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였고, 바지수트 차림은 밤색상하의 차림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이고 상반신이 가장 작게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수트차림이 하의 스타일과 의복색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성별, 의복스타일, 의복색에 따른 하반신 및 전체 신체이미지의 차이

성별, 의복스타일, 의복색에 따른 하반신 및 신체 이미지의 차이와 상호작용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

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하반신 및 전체신체 이미지 5개에 대해서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미지와 날씬해 보이는 이미지에서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엉덩이가 커 보이는 이미지는 성별과 의복색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엉덩이가 커 보이는 이미지는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주효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엉덩이가 커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키가 커 보이는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복스타일에 따라서는 허리가



<표 3> 성별, 의복스타일, 의복색에 따른 하반신 및 전체 신체이미지의 차이

(N=637)

변량원		df	엉덩이가 커 보이는 F	다리가 길어 보이는 F	키가 커 보이는 F	날씬해 보이는 F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F
성별(A)		1	4.91*	4.69*	10.78**	1.04	.20
의복스타일(B)		1	4.07*	13.60**	13.12**	8.10**	3.00
의복색(C)		8	1.63	3.12**	2.36*	2.73**	1.92
A×B		1	1.88	8.59**	.48	5.53*	.44
A×C		8	2.39*	1.61	.87	.84	1.29
B×C		8	2.26*	.96	.76	1.21	1.87
A×B×C		8	1.44	1.09	.80	.69	1.07
잔 차		601					
독립변인		n	M	M	M	M	M
성 별	남	315	4.35	3.85	4.31	3.48	3.14
	여	322	4.12	4.09	4.65	3.53	3.03
의 복 스타일	스커트	343	4.33	3.81	4.30	3.36	3.03
	바지	294	4.12	4.17	4.69	3.67	3.16
의복색	검정/검정	64	3.89	4.34(a)	4.88(a)	4.05(a)	3.50
	청색/청색	64	4.41	3.89(abc)	4.33(bc)	3.03(d)	3.00
	밤색/밤색	78	4.58	3.67(c)	4.37(bc)	3.22(cd)	2.74
	베이지/베이지	75	4.39	3.80(bc)	4.35(bc)	3.45(bcd)	3.03
	회색/회색	66	4.30	4.20(ab)	4.74(ab)	3.56(bc)	3.08
	청색/검정	77	4.08	3.68(c)	4.18(c)	3.74(ab)	3.27
	밤색/검정	75	4.11	4.00(abc)	4.25(c)	3.40(bcd)	3.23
	베이지/검정	70	4.14	4.23(ab)	4.77(ab)	3.53(bc)	2.97
회색/검정	68	4.18	4.09(abc)	4.54(abc)	3.57(bc)	3.01	

\* p<.05, \*\* p<.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결과(p<.05)

가늘어 보이는 이미지를 제외한 4개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복색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키가 커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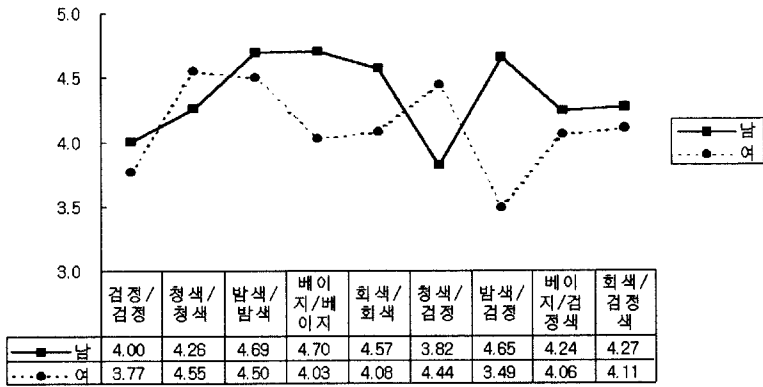
주효과를 보면 엉덩이가 커 보이는 이미지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자극물의 엉덩이를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스커트수트 차림이 바지수트 차림보다 엉덩이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색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미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극물의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바지수트가 스커트수트 보다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색에서는 검정색 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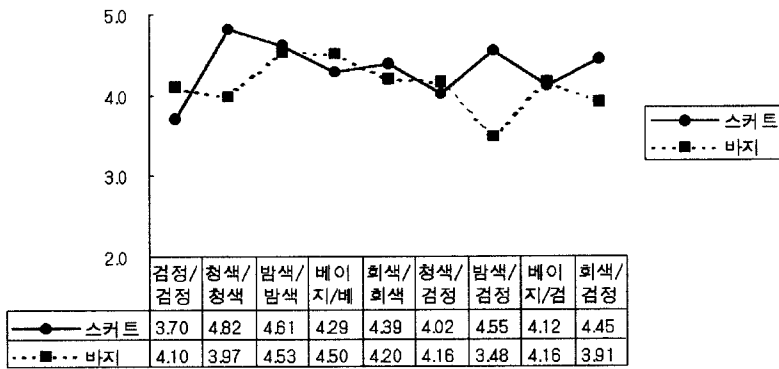
의 차림이 다리가 가장 길어 보였고, 밤색 상하의와 청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 차림이 가장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가 커 보이는 이미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극물의 키를 더 크게 지각하였고, 바지수트 차림이 스커트수트 보다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에서는 검정색 상하의 차림이 가장 키가 커 보였고, 청색상의에 검정하의의 차림과 밤색 상의에 검정하의의 차림일 경우가 가장 키가 작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씬해 보이는 이미지는 의복스타일의 경우 바지수트 차림이 스커트수트 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색에서는 검정상하의 차림이



〈그림 3〉 엉덩이가 커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성별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4〉 엉덩이가 커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가장 날씬해 보였고, 청색상하의 차림이 가장 날씬하지 않게 지각되었다.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이미지는 3개 독립변인 각각에 대한 주효과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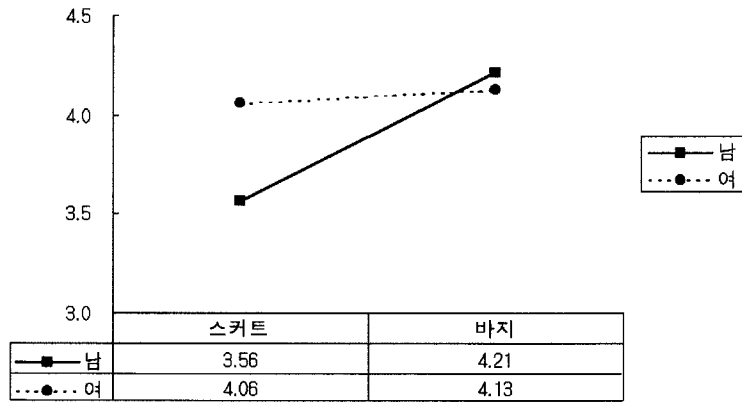
〈그림 3〉은 엉덩이가 커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성별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청색상하의에 검정하의의 경우는 자극물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엉덩이를 크게 보는 경향을 보였고, 베이지상하의, 회색상하의, 밤색상하의에 검정하의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엉덩이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 성별과 의복색에 따라 자극물이 다르게 지각되었다.

〈그림 4〉는 엉덩이가 커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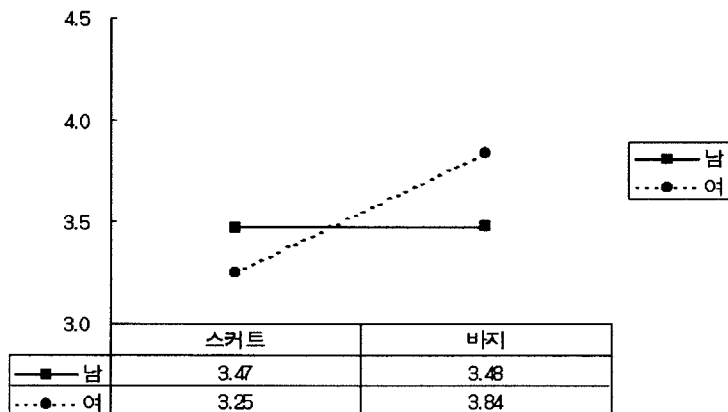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스커트는 청색상하의가 가장 엉덩이가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정상하의가 가장 엉덩이가 작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바지 스타일은 의복색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림 5〉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남자의 경우 의복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있어 바지 차림이 스커트 차림보다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림 6〉은 날씬해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성별과



<그림 5>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6> 날씬해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의복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 의복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있어 바지 차림이 스커트 차림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남자의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자극물의 하반신 신체이미지를 다르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의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서 스커트수트 차림이 바지수트 차림보다 엉덩이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바지수트가 스커트수트 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복색에서는 검

정상하의 차림이 다리가 가장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여 남자의 경우 바지수트 차림이 스커트수트 차림보다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여자는 스타일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지각하였다.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스커트수트는 청색상하의가 가장 엉덩이가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정상하의가 가장 엉덩이가 작아 보

〈표 4〉 의복스타일, 상하 의복의 배색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

(N=537)

신체이미지, 의복스타일	의복배색	상하 동일색(n=347)	상하 다른색(n=290)	t
		어깨가 넓어 보이는	스커트	
	바지	4.45	4.80	-2.11*
엉덩이가 커 보이는	스커트	4.37	4.28	.61
	바지	4.27	3.94	1.96
상반신이 커 보이는	스커트	4.55	5.01	-3.14**
	바지	4.21	4.37	-.92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커트	3.82	3.79	.18
	바지	4.13	4.22	-.56
키가 커 보이는	스커트	4.38	4.19	1.38
	바지	4.69	4.70	-.09
날씬해 보이는	스커트	3.28	3.46	-1.20
	바지	3.65	3.69	-.22
가슴이 커 보이는	스커트	3.98	4.10	-.70
	바지	3.34	3.52	-1.07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스커트	3.01	3.04	-.25
	바지	3.11	3.22	-.73

\* p<.05, \*\* p<.01

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복스타일을 분리하여 상하의복의 배색에 따른 신체이미지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어깨가 넓어 보이는 이미지는

스커트수트 차림과 바지수트 차림에서 모두 의복배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상반신이 커 보이는 이미지는 스커트수트 차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깨가 넓어 보이는 이미지는 스커트와 바지수트 차림 모두에서 상하 다른색이 상하 동일

〈표 5〉 의복스타일과 색에 따른 지극물의 신체적 이미지

의복스타일	의복색	상하 동일색: 어깨가 좁아 보임, 상반신이 작아 보임				상하 다른색			
		검정/검정 : 날씬해 보임	청색/청색 : 가슴 작아 보임	밤색/밤색 : 가슴 커 보임	회색/회색 : 상반신 작아 보임	베이지/베이지 : 가슴 커 보임	청색/검정 : 가슴 작아 보임	밤색/검정 : 가슴 커 보임	베이지/검정 : 가슴 커 보임
스커트수트 : 가슴이 커 보임		· 어깨가 좁아 보임	· 엉덩이가 커 보임		· 상반신 작아 보임		· 상반신이 커 보임	· 상반신이 커 보임	
바지수트 : 날씬해 보임				· 어깨가 좁아 보임	· 상반신이 커 보임				

색보다 더 넓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신이 커 보이는 이미지는 스커트수트 차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상하 다른색 스커트수트 차림이 상하 동일한 스커트수트 차림보다 더 상반신이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반신이 커 보이는 이미지는 의복배색과 의복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의복스타일과 의복배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의복스타일과 색에 따른 자극물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 의복스타일, 의복색에 따른 상, 하반신 및 전체적인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조사하고, 의복의 배색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의복색,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반신 이미지 지각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별에 따라 자극물의 신체이미지를 다르게 지각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자극물의 어깨나 상반신을 대체로 넓고 크게 지각하였다. 의복스타일에서 스커트수트 차림이 신체의 상반신 이미지 지각에 대해 바지수트 차림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상반신과 가슴이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색에서는 밤색상하의 검정하의 차림이 가장 어깨가 넓어 보였고, 상반신이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 검정상하의, 청색상하의의 차림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이고, 상반신과 가슴이 가장 작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색상하의, 베이지상하의, 밤색상하의 검정하의, 베이지상하의 검정하의가 가장 가슴이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스커트수트 차림은 검정상하의 차림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였고, 바지수트 차림은

밤색상하의 차림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였고, 상반신이 가장 작게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둘째, 성별, 의복색, 의복스타일에 따른 하반신 이미지 지각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별에 따라 자극물의 하반신의 신체적 이미지를 다르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의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서 보면 스커트수트 차림이 바지수트 차림보다 엉덩이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바지수트가 스커트수트 보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 키가 더 커 보였으며, 더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복색에서는 검정상하의 차림이 다리가 가장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남자의 경우 바지수트 차림이 스커트수트보다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에서 스커트수트는 청색상하의가 엉덩이가 가장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정상하의가 가장 엉덩이가 작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상하 의복배색에 따른 신체적 이미지지각의 차이를 의복스타일을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어깨가 넓어 보이는 이미지는 스커트와 바지수트 차림 모두에서 상하 다른색이 상하 동일색보다 더 넓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신이 커 보이는 이미지는 스커트수트 차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상하 다른색 스커트수트 차림이 상하 동일한 스커트수트 차림보다 더 상반신이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복을 착용한 지각 대상자를 지각하는데 있어 의복색, 의복스타일, 의복배색은 신체적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의복 단서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의복단서들은 지각자의 성별과 상호관련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별이 대인 지각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자극물이 실물 착용자의 옷차림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차후의 연구에

서는 의복아이템을 좀더 다양화 하고 지각대상자의 연령이나 성별을 다양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 ■ 참고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49-53, 70.
- 김영자(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김영사, p. 172.
- 박순천(2002). 중년남성 정장의 체형에 적합한 시각 효과를 위한 의복디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위은하, 김옥진(2001). 중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수트의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視覺 效果. *한국의류학회지*, 25(3), 525-536.
-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화, 나수임(1999). 의복의 인상형성이론에 대한 연구동향. *복식문화연구*, 7(1), 117-127.
- 이명희, 강승희(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미연(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미, 김재숙(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립,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 2보): 여자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1052-1059.
- 정양은(1982).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p. 177.
- 최은영(1995).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격자무늬와 물방울무늬를 중심으로. *복식*, 24, 193-203.
- 한민영, 이지은(2000). 3차원 사이버 스페이스의 VR(가상현실)의 활용. 용인대학교 조형연구소. *조형논총*, 5, 103-110.
- Francis, S. K. & Evans, P. K.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ual & Motor Skills*, 64(2), 383-390.
- Hastorf, A. H., Schneider, D. J., & Polefka, J. (1970). *Person Perception*. CA: Addison-Wesley Pub. Co., 1-17.
- Lennon, S. J., & Davis, L. L. (1989).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Theoretical Perspectiv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6(4), 41-48.

(2003년 5월 29일 접수, 2003년 9월 1일 채택)